



마을의 설화

이 마을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**괴이한 설화**가 있다.
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자리한 우물이 있는데,
"그곳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."는 내용이었다.

그런데 **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**
그에 따르는 대가 또한 참혹하다고 전해진다.

평생의 부귀영화를 탐한 자는 금은보화를 얻었되,
며칠 후 피부가 검게 변하고 송곳니가 자라더니, 오장육부가 터져 나와
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고, 분에 넘치는 여인을 탐한 자는 그 여인을
얻었으나, 훗날, 메뚜기 떼가 덮쳐 살점을 모조리 먹어치워
백골만 남았다 하니, 참으로 기괴한 일이었다.

마을 사람들은 **저주받은 우물**이라 하여
그곳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.